



다산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 - 중국의 다산 연구를 중심으로 -

박 정 응
중국남경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

요 약

2012년은 다산 탄생 250주년이자 한중수교 20주년이다. 한중수교 이후 20년간 이룩한 양국관계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다. 학술제도 정치, 경제, 대중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학(韓國學)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산한 편이다. 한국학은 중국학의 아류라는 중국학자들의 오래된 편견으로 자신들이 한국학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인공이자 한국의 대표적 학자인 정약용의 중국 내 지위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자로 추앙받으며 매년 몇십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년의 시간 동안 학술논문 20여편, 석사논문 2편, 박사논문 1편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정약용을 드라마 속 탐정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다산은 한국의 대학자이다. 하지만 다산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그의 불굴의 정신은 한국의 대학자에 머무르기에는 너무 아쉽다. 다산은 세계적인 대학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이제 한국이라는 작은 우물을 벗어나 세계라는 바다로 뿔어나가는 한국의 대학자가 아닌 세계의 대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의 이웃이자 한국학 관련 인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갖춰진 중국에 다산을 알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지만 현재는 역으로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에 다산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정약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학술적 성과가 있는지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다산 학문을 알리기 위한 몇 가지 방법도 제시하였다. 단순히 논문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분

류 및 분석하였으며, 정약용을 중국에 알리는 방법 또한 추상적인 방법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 다산이 추구하는 실용적인 논문이 되고자 노력했다.

본 논문이 중국 내 정약용의 실정을 파악하고 정약용과 그의 학문을 중국에 전파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

머리말

중국의 학자들과 학생들은 한국을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문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중국학(中國學)이 없었으면 현재의 한국학(韓國學)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학은 절대 중국의 아류 학문이 아니다.

한국학이란 한국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역사학이나 물리학처럼 특정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된 언어·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지리·과학 등의 모든 영역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웃이자 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지만 현재는 역으로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에 한국학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가장 먼저 알려야 할 학자는 18세기 조선의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이며 대상 국가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중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다산의 학문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아닌 다산학문의 위대성과 함께 중국에서는 다산이 어떻게 연구되고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다산을 중국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작성하였다.

I . 중국 속 한국학 - 다산학 확산 필요성

정약용은 중국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당시 유행하던 서양의 천주교를

받아들이 자신의 학문을 더욱 풍부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증과 냉철한 사고를 통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당시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과감히 변경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학문인 다산학(茶山學)을 창시하였다.

이는 그의 저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500권이 넘는 그의 저술에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저술한 『목민심서』·『흠흠신서』·『경세유표』, 당시 주요 철학 사상인 유학과 관련된 『논어고금주』·『맹자요의』·『대학강의』·『중용강의』 등의 저서, 어원 유래를 연구한 『아언각비·이담속찬』,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300조목을 뽑아서 차례로 열거한 뒤 출전과 내용을 설명한 『소학주관』, 홍역의 처방전을 다룬 의과서적 『마과회통』, 음악교육론 『악서고전』, 우리나라 강역의 역사 지리서인 『아방강역고』와 주요 하천의 연혁을 집중 연구한 『대동수경』 등 그의 수많은 저작들의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내용 또한 우수해 정약용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

이로써 본다면 한국학은 정약용 이전의 한국학과 정약용 이후의 한국학으로 나뉘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周)나라의 학문을 집대성하고 자신만의 학문을 펼친 중국의 공자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약용을 아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정약용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다. 그는 본래에 있던 한국학을 총 집대성해 다시 자신만의 언어로 풀이해서 또 다른 형식의 한국학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국학의 아버지인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학을 총 집대성하고 가장 한국적인 학문을 구사한 다산이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알려져야 할 국가는 중국²⁾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 관련 인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갖춰진 국가에 대해서 김병운(2009)은 “중국에는 2009년까지 전국 58개의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재학생도 13,000명이 넘는다. 이는 국립대학의 재학생만 포함한 것이며 만약 사립대학과 전문대학교까지 포함하면 한국학 전공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등교육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106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중국 대륙지역의 20개 직할시와 성 그리고 자치구에 분포되어있다.”³⁾ 라고 말했다. 중국 학계에서 한국학의 중요성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연구 보다는 떨

1) 네덜란드 레이덴(Leiden)대학교의 바우더베인 발라번(Baudewijn Walraven)교수도 올해 열린 제 6회 다산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자신의 논문 “Tasan's Writings as a Resourc for the Historical Anthropology of Late Choson Society”에서 다산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할 수 있다며 극찬했다.
 2) 본 논문에서 말하는 중국은 대만을 제외한다.
 3) 김병운, 2009, 「중국어권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쪽.

어지지만 학문적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되었고 한국학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둘째, 중국과 한국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다.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상적, 역사적, 문화적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같은 문자를 사용하면서 같은 경전을 읽었고 같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차이는 있지만 모든 방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전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산의 저서들은 한문으로 쓰였는데 이는 유럽이나 미주와는 달리 따로 번역이 필요 없어 중국학자들이 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내에 다산 붐이 분다면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갖고 있는 다산학의 연구는 바로 한국학의 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류의 영향이다. 이와 관련 중국내의 한국어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드라마나 가수를 좋아해서 한국어라는 나라에 흥미를 느껴 한국어학과를 선택하였다는 학생이 전체 신입생의 삼분의 일을 차지한다고 분석한 연구가 주목된다.⁴⁾ 이렇듯 한류의 영향은 중국에서 매우 큰데 한류라는 단어가 중국 언론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는 만약 다산을 한류와 적절히 조화시켜 학문의 정약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의 정약용을 만든다면 중국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다산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1/5이 중국인이다. 이들이 스스로 다산을 연구하고 세계에 알린다면 자연스럽게 다산과 한국학은 세계의 학문으로 우뚝 솟을 수 있을 것이다.

II . 현대 중국에서의 정약용 이해

한국 실학의 집대성자이자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 많이 부족하지만 세계에서 그나마 한국학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중국에서 다산의 인지도는 어떨까? 대중적 인지도와 학계에서의 인지도로 나눠 알아보자.

중국 최고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바이두⁵⁾에서 정약용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국에서 공자를 검색하면 그의 일대기와 업적 또는 공자와 관련된 논문 등이 매우 상세하게

4) 임효래, 2010, 『중국의 한국어 문화교육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제6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7쪽.

5) www.baidu.com.

나오듯이 정약용도 중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500여권이 넘는 그의 저서 목록이 있을까? 아쉽게도 둘 다 아니다. 바이두에서 정약용을 검색⁶⁾하면 제일 위에는 OCN의 8부작 “조선탐정 정약용”⁷⁾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 바로 아래 정약용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지만 이마저 KBS에서 만든 중국판 다큐멘터리를 요약한 내용들이다.⁸⁾



그림 1. 출처: www.baidu.com

검색 결과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모두 드라마와 관련된 내용이며 그 뒤부터 간간히 정약용에 관한 학술적 내용이 등장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적을뿐더러 내용 또한 매우 빈약하다.

중국 최대의 인터넷 신문인 신화망⁹⁾에서 정약용에 관한 신문을 검색해 본 결과

- 6) 본 검색은 2012년 8월 3일에 진행.
- 7) 정약용이 탐정으로 변신하여 각종 사건을 추리하는 퓨전 추리사극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OCN에서 방영.
- 8) 『朝鮮王朝偉大的老師 實學宗師 丁若鏞』, KBS (韓國國際廣播電台) 中國語廣播官網.
- 9) <http://www.xinhuanet.com/>

Panguso 盘古搜索

新闻 网页 图片 音乐 网址 地图 BETA

丁若镛

搜索到相关网页约 33 篇，用时 0.316 秒

韩智敏携《朝鲜名探长丁若镛》回归大荧幕(图)
演员韩智敏时隔三年回归大荧幕。韩智敏继2007年拍摄了电影《解剖学教室》三年之后，将在《朝鲜名探长丁若镛》中，与金明民合作，回归大荧幕。《朝鲜名探长丁若镛》根据金泽焯的推理小说《烈文门》
猫扑网 2010-9-10 13:39-1 分享 收藏 发送到手机

相关人物: 韩智敏 丁若镛 金明民 金锡允
相关地域: 韩国

资料: 韩剧《李祘》分集介绍(第69-73集)
第69集 身为丁若镛找来需要的资料，张泰佑在宫里遇到丁若镛，警告他不要因为得到皇上的宠爱就可以为所欲为。在执务室，祘和清朝太监面对面地对视着。 第70集 松洲听到清朝军队动用武力的消息，为了了解
新浪 2009-1-7 2:46:4 分享 收藏 发送到手机

相关人物: 丁若镛 张泰佑 崔锡禧 荣祖 文新波
相关地域: 韩国 朝鲜

“朝鲜名侦探”或拍续集沿用第一部主创阵容
《朝鲜名侦探》的主角“金镇”，人物原型是朝鲜李朝历史上著名的哲学家“丁若镛”。导演金锡允曾介绍，这是一部类似于《夺宝奇兵》和《大侦探福尔摩斯》的“愉快推理剧”。金锡允表示，在丁若镛撰写的刑
电影网 2011-2-28 10:58:28 分享 收藏 发送到手机

相关人物: 福尔摩斯 金锡允 金明民 丁若镛 赵光秀
相关地域: 韩国 台湾

所有结果
新闻
图片
音乐

相关来源
eNet硅谷动力
中华网
粉丝网
深圳之窗
时光网
电影网
新浪
中国民族宗教网
猫扑网

按焦点排序 | 按时间排序

그림 2. 출처: 중국 신화망

신화망에서 정약용을 검색하면 33개의 기사가 뜨지만 대부분은 드라마와 연관된 내용이다.

中国传统文化在国外的传播和影响

2006年05月30日 09:38:06 来源: 学习时报

【字号 大 中 小】 【我要打印】 【我要纠错】 【Email推荐: 提交】

汉唐以后，中国传统文化，包括儒释道思想以及文字、绘画、建筑、雕刻等等，传入了日本，譬如程朱理学与陆王心学在日本的传播，形成了日本的朱子学、阳明学；唐鉴真东渡，中国的佛教文化以及雕塑等传到日本，大量日本遣唐使如吉备真备、高僧空海、阿倍仲马吕等到中国研习中国的文化。如此，使日本的文字、建筑深受中国文化的影响。现在我国难觅身影的十字亭，在日本还有完好的保存。在韩国，影响最大的是中国文化，尤其是儒家思想和明清以后的实学思想，如果人们不知道李退溪、曹南冥、李栗谷、洪大容、丁若镛等人是韩国哲学家，仅看他们的著作难以判断作者的国籍。而中国文化中的礼教内容，在中国早已失传，在韩国还保留的相当完整，因此，韩国被西方国家称为是儒教国家的活化石。

그림 3. 출처: 중국 신화망

밑줄 번역: “만약 사람들이 이황, 이이, 홍대용 정약용 등이 한국의 철학자인지를 모른다면 그들의 저작을 보고는 한국인의 저작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 글은 정약용 검색 후 유일한 학술적 기사(사설)지만 한국의 대학자들(정약용 포함) 모두 중국의 학문과 별 차이가 없다는 논조로 글을 쓰고 있다.

모두 33편의 기사가 검색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드라마와 관련된 내용이며 1편만이 학술적 내용의 사설이었다. 하지만 그 사설의 제목은 “중국문화의 국제적 영향”¹⁰⁾으로 한국의 이황, 이이, 홍대용 그리고 정약용 등이 모두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중국에서는 학자 정약용보다 드라마 속 탐정 정약용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중국의 공자, 맹자 등 중국의 대표적 학자를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대학자로 섬기는 것과 매우 대조적으로 서글픈 마음마저 든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히려 다산을 중국에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뒤에 설명하겠다.

대중적 인지도에 이어 중국 학술계에서 다산의 인지도를 알기 위하여 중국의 대표적 학술사이트인 CNKI¹¹⁾에서 정약용을 검색해 보았다.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일반학술논문, 우수석사논문, 박사논문 세 종류로 나눠 검색어에는 각각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정약용을 입력해 검색했다.

먼저 일반학술논문은 1994년부터 현재¹²⁾까지 모두 26,926,934편으로 검색어에 한국을 넣으면 58,826, 중국 2,805,408, 일본 246,456, 미국 557,648, 정약용 21편이 검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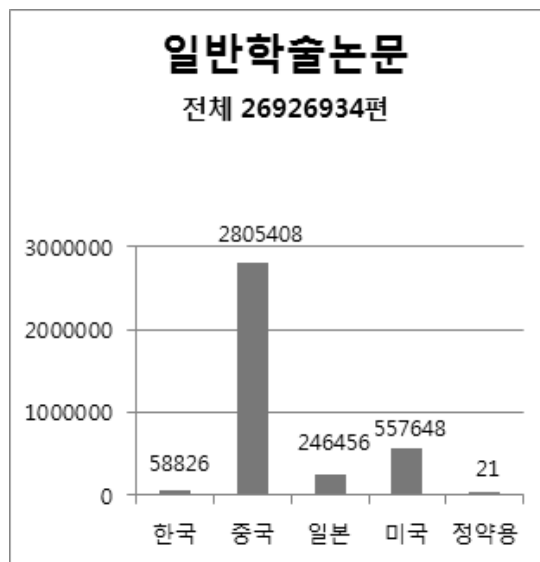


표 1 출처 CNKI

10) [中]중국문화의 국제적 영향, <신화왕> 2006/05/30.
http://news.xinhuanet.com/theory/2006-05/30/content_4619435.htm.

11) 中國知罔網 <http://www.cnki.net/>.

12) 1994년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

우수석사논문은 같은 기간 전체 1,141,681편이 등록되었으며 그 중 한국은 4,789 중국 198,696, 일본 24,912, 미국 57,432, 정약용 4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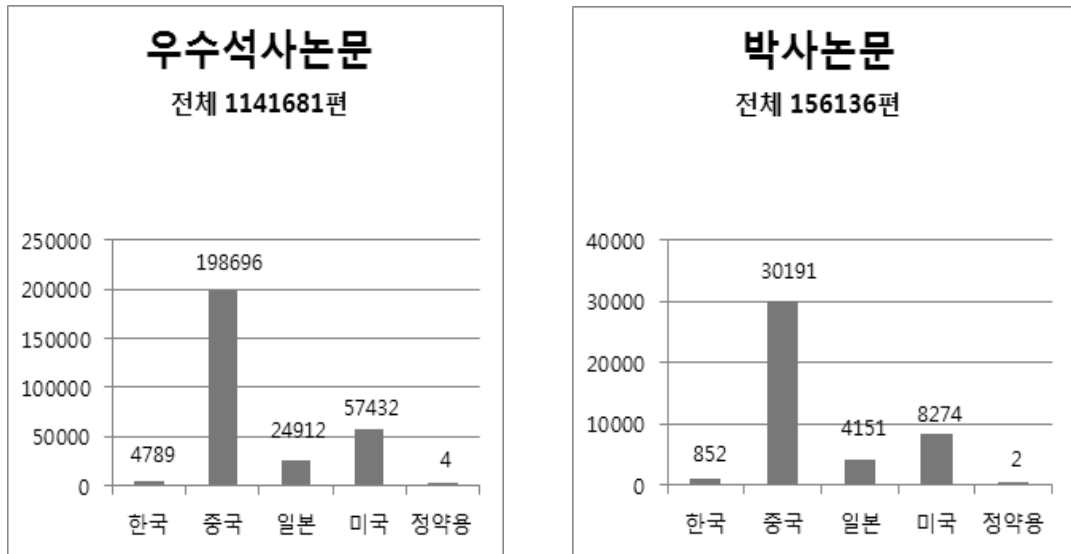


표 2. 출처 CNKI

마지막으로 박사논문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156,136편이 쓰였으며 검색어에 한국을 입력했을 경우 852편, 중국 30,191, 일본 4,151, 미국 8,274, 정약용은 2편 이었다.

위의 검색 결과를 보면 각 항목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한국으로 검색했을 경우 일반학술논문은 전체의 0.2%, 우수석사논문은 0.4%, 박사논문은 0.5%를 약간 넘는다. 이는 한국의 또 다른 이웃인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인데 전체적으로 일본의 20~23% 정도에 불과하다. 본 논문의 주제인 정약용으로 검색할 경우 일반학술논문, 우수석사논문, 박사논문을 모두 합쳐도 30편이 되지 않는다. 물론 단순히 나라 이름을 검색해서 그 수를 갖고 비교한다는 것은 억지 같기도 하지만 그 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특히 정약용은 전체논문(일반논문+우수석사논문+박사논문) 28,224,751편 중 27편으로 0.0001%에 불과해 중국 내에서 다산의 인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국과 관련 된 논문이 몇 백편씩 발표되는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의 대(對)한국 관심은 매우 적었다. 발표되는 논문의 주제들도 정치, 경제, 한류에 한정되는 반면 한국학(인문학)과 관련 된 내용은 소수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K-Pop,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는 중국에

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학문에서는 중류(中流)의 바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불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국학의 일부인 정약용의 인지도 또한 마찬가지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정약용의 중국 내 인지도는 거의 없다. 한국의 대학자이자 자량인 정약용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다산 연구에 대해서 분류 및 분석하겠다.

Ⅲ . 정약용과 다산학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동향

중국 최대의 학술 참고인 CNKI에 정약용을 검색하면 모두 27편의 결과가 나왔다. 27편 중 진정으로 정약용과 관련 된 논문은 필자가 추려 본 결과 모두 20편이었다. 20편의 논문을 ‘연구자에 따른 분류 및 분석’과 ‘주제별 분류 및 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1. 연구자에 따른 분류 및 분석

20편의 논문의 연구자를 분석하면 ‘한국연구자의 논문(3편), 한국유학과 중국연구자의 논문(2편), 중국 연변대학교 출신 학자의 논문(4편), 기타(11편)’ 이렇게 네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타(11편)를 제외한 세 개 범주의 연구자 및 그들의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0편의 논문 중 3편의 논문이 한국학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7편의 논문은 중국학자(조선족 포함)가 작성했다. 한국인이 작성한 3편의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소개할 논문은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방인이 저술하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과학부 강사이자 경북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중국인 林海順이 번역한 『『周易四箋』의符號學解讀』(2010)이다¹³⁾. 방인 교수는 한국에서도 동양 철학 전반에, 특히 주역 방면으로 많은 연구결과를 내고 있는데 다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은 「다산역학의 변증법적 이념」(1999), 「다산역의 기호론적 세계관」(2003) 등이 있다. 중국 주역의 대표적 학술지인 『周易研究』에 실린 그의 논문은 2008년 11월 28일 한국 강진군에서 열린 ‘『주역사전』 무진본 발

13) 한국어 제목: 주역사전의 기호학적 독해.

간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다산역의 기호계는 상제(하느님), 자연, 인간사회의 3영역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며”상제의 영역은 분명하게 기호화되지 않고 배후에 숨어 있다고 주장한 당시 발표내용이 실려있다.

이어서 소개할 논문은 1999년 『(최신)외국법제정보』에 실린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원택의 논문 『丁若鏞의 復讐에 대한 인식과 親 관념 : 『欽欽新書』 『經史要義』를 중심으로』이다. 2004년 중국의 법률 잡지인 『法律史學研究』에 「19世紀朝鮮丁若鏞의 復仇論」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번역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복수에 대한 인식에서 정약용은 사적인 복수를 억제하고 공적인 법 집행으로 그것을 흡수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저자의 의견은 법(法)보다 관계(關係)가 먼저인 중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한국인 학자가 쓴 논문은 2008년 중국 산둥사범대학교 학보에 발표된 중국 청화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홍석의 『簡論丁若鏞의 民本思想』이다. 그는 1972년생으로 1994년 북경어언대학에서 언어연수로 중국유학을 시작, 북경대학(국제정치학)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9년부터 청화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중국 전문가이다.

그는 위 논문에서 정약용의 사상적 기초는 중국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조선의 사회 실정에 맞는 한송(漢宋)의 경세실학을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다산의 민본사상(民本思想)을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그리고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민본사상을 부민사상(富民思想), 목민사상(牧民思想), 교민사상(教民思想), 한민사상(閔民思想)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의 논문은 “정약용은 한국의 대학자이자 조선말기 유학의 완성자”라며 끝을 낸다.

비록 세 편의 논문이지만 여기서 시도된 주제를 보면 한국 학자들이 중국에 정약용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맺음말에서 설명하겠다.

17편의 중국인이 쓴 논문 중 2편은 한국에서 유학을 한 중국인이 쓴 논문이다. 한국 유학파의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소개할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한국고전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교의 교수인 陳冰冰과 인하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인 郝君峰이 함께 저술한 「蘇軾의 『魚蠻子』와 丁若鏞의 『耽津漁歌』의 對比考察」이다. 陳冰冰은 한국고전문학과 한중문학비교의 전문가이며 郝君峰 역시 한중고전산문과 시가(詩歌)의 전문가이다. 그들의 논문은 2010년 『世界文學評論』에 발표되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식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문학가, 그리고 서예가이다. 특히 시에 가장 조예가 깊었던 그는 일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지혜로 승화시켜 수많은 명시들을 남겼다.

정약용 또한 한국의 대표적 시인인데 그의 저작에는 인애정신과 사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깊게 배어있다.

이 둘은 다른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시간상으로도 백여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우수한 저작들을 통해 우리는 이 둘을 이어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찾을 수 있다.

소식의 『魚蠻子』와 정약용의 『耽津漁歌』는 모두 유배지에서 저술된 작품으로 어부의 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다. 비록 서로 다른 형식으로 어부의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저술했지만 두 작품 모두 생활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약용의 『耽津漁歌』가 소식의 『魚蠻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참고는 했겠지만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이 쓴 작품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학자가 쓴 논문이지만 한국 유학(留學)을 통해서 배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소식과 정약용의 작품을 비교하고 있다.

이어서 소개할 한국 유학과의 논문은 邢麗菊의 『從茶山經學看其心性論』이다. 현재 복단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연구센터 연구원인 邢麗菊은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시에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의 학술잡지인 『유교문화연구』의 국제판 편집자였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자 한국 동양철학회 회장인 최영진의 『韓國儒學思想研究』(2010)를 번역하는 등 한중 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유학 잡지인 『孔子研究』에 발표한 논문 『從茶山經學看其心性論』(2006)에서 邢麗菊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다산의 심성론은 이전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제 생활에서의 행동과 의식의 관찰을 통해 다산 자신만의 독특한 경학체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이다. 그는 일생 중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경학 해석에 있어서 정약용은 주자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벗어나 현실과 실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 존재를 현실성과 개체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파악한 그의 심성론은 심(心)을 인간 존재의 핵심이자 현실적인 실체로 보았다. 반면 성(性)은 천부적이지만 보편적 동질성이 아닌 개체적 특수성으로 보았다.

다산의 사상은 인간의 자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 사고를 강조했다. 이런 다산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

邢麗菊은 중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정약용의 심성론에 관한 내용을 한국 논문과 서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중국인이 저술한 정약용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우선 그들은 다양한 한국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산이 저술한 일차자료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이차자료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잘 이해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문단에서는 한국 논문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중국인의 시각으로 중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한국인이 쓸 수 없는 논문을 쓰는 것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최근 한국에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들도 중국 학생들이다.

표 3 주한 유학생 수

(2011. 4. 1)

| 국가 | 중국 | 일본 | 미국 | 베트남 | 대만 | 몽골 | 기타 | 계 |
|-------|--------|-------|-------|-------|-------|-------|--------|--------|
| 유학생수 | 59,317 | 4,520 | 2,707 | 2,325 | 1,574 | 3,699 | 15,395 | 89,537 |
| 비율(%) | 66.2 | 5.0 | 3.0 | 2.6 | 1.8 | 4.1 | 17.2 | 100.0 |

출처: 통계청

한류에 의해서 한국에 온 학생들도 있고 수능 시험이 저조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찾는 학생들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 한국에 왔던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겉모습만이 아닌 진심으로 한국을 배우고 체험하여 중국에 돌아가 진정한 한국, 진정한 다산을 알렸으면 한다.

계속해서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의 두 편의 석사논문, 그리고 두 논문의 지도교수인 方浩范과 그의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국 조선족 자치구 연변의 최고 교육기관인 연변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1949년 조선어 언문학과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 유일의 한국어 국가중요학과(朝鮮語國家重要學科)이다. 한국어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학과에서도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학자들을 보내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

CNKI의 우수석사논문 항목에서 정약용을 검색할 경우 4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두 편의 논문만이 직접적으로 정약용과 관계가 있었다. 이 두 편의 석사논문을 쓴 학생은 모두 2007년 6월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외국철학과 석사반 졸업생으로 이 둘의 지도교수는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교수인 方浩范이다. 우선 두 학생의 석사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논문은 2007년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외국철학과 석사 졸업생인 孫濤의 졸업논문 『顏元和丁若鏞的哲學思想比較』이다. 孫濤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국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에 활발했던 학자 顏元和 정약용의 사상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안원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이며 顏李학파의 창시자이다. 그는 부국강병, 민본사상, 현실개혁 등과 같은 실질적인 학문에 중점을 둔 실학자이다. 그는 송나라의 형이상학적인 유학을 비판했으며 “행동해야지 알 수 있다.”, “경험해야지 이치를 깨우친다.”와 같은 실제 경험을 중시하였다.

정약용은 조선시기의 사상가이자 교육가, 그리고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그 또한 중국전통유학을 비판하고 고대사회를 이상화함으로써 군주제를 반대하고 민주정치를 부르짖었다. 그의 사상은 조선말기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학자이다.

안원과 정약용 모두 각국의 사상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그 둘이 활약하던 시기가 비슷하며 당시의 불안정하던 사회로 인해 그 둘의 사상은 모두 실용과 현실을 중시하였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들은 모두 유학자이자 실학자로서 각국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당시의 한중양국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안원과 정약용의 사상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둘의 인생경험의 차이와 양국의 정서가 다른 관계로 일부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안원과 정약용의 비교는 한중의 학술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孫濤의 논문은 목차가 가지런하며 안원과 정약용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자와 주희의 사상까지 첨가하여 그 내용은 더욱 풍부하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참고문헌이 모두 중국 측 자료이며 그가 본문에서 분석한 안원과 정약용의 ‘인생관(人生觀)’, ‘인관(仁觀)’, ‘예관(禮觀)’은 모두 기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실학자인 안원과 정약용을 비교한 것은 그의 주장처럼 한중 학술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논문은 孫濤와 같은 학과 동기인 孫旭東의 졸업논문 『丁若鏞教育改革思想探析』이다. 孫旭東은 자신의 졸업논문에서 다산의 교육개혁을 통해 원시유학의 교육사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문 또한 “정약용은 조선시기의 문학자, 사상가이자 실학의 집대성자”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그의 논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정약용은 조선시기의 문학자, 사상가이자 한국 실학의 집대성자이다. 그는 공리공담과 형식주의를 거부했으며 실제와 현실을 중시했다.

다산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원시유교에서 주장했던 교육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다산을 통해서 원시유교의 교육사상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산은 당시 교육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현실성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그의 교육사상에는 당시 시대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

다산은 유교의 ‘명명덕(明明德), 인(仁), 수기(修己)’를 교육개혁의 핵심 이론으로 삼았다. 그의 교육사상은 19세기 조선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 중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사상들이 있다. 다산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간과 인간의 화합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다산의 교육사상을 배우는 것은 21세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

孫旭東은 孫壽와는 달리 다양한 한국 자료들을 참고하여 논문의 내용이 중국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국의 내용을 고루 담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약용의 시각으로 제시하면서 양국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두 편의 석사논문에 이어서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方浩范교수와 그의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方浩范은 앞에서 소개한 두 편의 석사논문의 지도교수이다. 또한 2004년 전남대에서 「정약용의 신행묘합적 인간관」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유학파이기도 하다. 현재 연변대 교수인 그는 중국 학술계에서 활발하게 한국학을 알리고 있다. 2004년 전남대 졸업 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18편(공저 포함)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 3편이 정약용과 관계되었으며 6편의 논문이 한국과 관계가 있다. 그의 학술성과 중 절반이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1964년생인 그는 한국에서도 1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方浩范가 작성한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논문은 2005년 연변대학교 학보에 발표된 方浩范의 「試論丁若鏞的天理人慾思想」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위대한 한국의 철학자 정약용은 사람의 욕망에 대한 주자의 성리학적 관점을 비판하고, 사람의 욕망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사람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주자와 다산의 욕망관의 차이는 그들 둘의 사람관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주자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했으며 다산은 성(性)은 기호(嗜好)라고 생각하였다.

다산은 사람의 욕망을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시유학에서는 모두 기호설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리학의 천즉리(天卽理)와 성즉리(性卽理) 사상이 원시유학의 관점을 흐려놓았다고 비판했다.

다산은 비록 인간의 욕망은 인정하지만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회제도의 정비를 통해 무제한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려는 기존 성리학과는 구별되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는 많이 연구된 다산의 기호설을 중국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본 논문은 다시

3편의 논문에 재인용되었으며, 그의 또 다른 논문 『茶山‘性嗜好’人間觀』에서도 다산의 기호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소개할 方浩范의 논문은 중국 절강대학교 고문학연구소 교수인 東景南과 함께 작성한 『丁若鏞實學中仁學思想體系的建構』이다. 본 논문은 2008년 『孔子研究』에 발표되었다. 논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은 주자의 성리학에 반대했으며 공자, 맹자 시기의 원시유학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조선왕조의 정치이념이었던 성리학을 비판하며 새로운 주장들을 펼쳤는데 그 중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인(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주자가 만약 仁을 형이상학적 관념으로 이해했다면 정약용은 같은 仁을 도덕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항목으로 이해했다. 그는 仁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가치관념적인 것이 아닌 사람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실체라고 생각했다. 仁은‘효(孝),제(悌),자(慈)’와 같은 형식으로 사회, 정치,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충되며 인간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이론이라고 다산은 주장했다.

정약용이 추구했던 이상향은 인애로 충만한 사회로 이러한 사회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덕목으로‘효(孝), 제(弟), 자(慈)’를 제시하였다.”

위에 소개한 方浩范의 두 편의 논문은 다양한 한국인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또한 자신의 기본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필자가 方浩范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동학을 연구하면서부터였다. 필자는 동학에 관한 중국인의 의견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과는 方浩范의 논문을 비롯한 몇 편의 논문이 전부였다. 하지만 方浩范의 논문은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학 전반에 대한 풍부한 이해로 중국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글을 쓰고 있다. 또한 자신의 두 제자에게 정약용에 관한 논문을 쓰게 하면서 정약용을 중국 땅에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준 학자이다.

우리는 方浩范와 같은 중국인 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알며 한국학을 중국 땅에 알리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친한파(親韓派) 학자들이 많아져야 한국학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또한 희망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한국학과 다산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方浩范과 같은 학자에게 한국정부나 학계에서 일종의 격려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많은 중국인 학자들이 노력할 것이다.

2. 주제별 분류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정약용에 관한 20편의 논문을 다섯개의 주제로 나눠 설명하겠다. 위에서 이미 소개한 7편의 논문은 제목만 소개하겠다.

첫째, 정약용의 인간관(人間觀) 및 천관(天觀)을 주제로 한 논문이다.

20편의 논문 중 6편의 주제가 정약용의 인간관 및 천관과 관련이 있었다. 그 중 4편은 이미 위에서 소개한 연변대 인문사회과학부 方浩范 교수의 『試論丁若鏞的天理人慾思想』과 『丁若鏞實學中仁學思想體係的建構』,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복단대학교 교수인 邢麗菊의 『從茶山經學看其心性論』, 중국청화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한국인 박홍석의 논문 『簡論丁若鏞的民本思想』 이렇게 4편이다. 이들 4편을 제외한 다른 2편은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철학과 濂培元교수의 논문 『丁若鏞的仁學觀』, 중국인민대학교 교수인 姜日天의 논문 『丁若鏞的天道觀與18,19世紀韓國實學形而上學』이다. 4편을 제외한 2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첫 번째 소개할 논문은 濂培元교수의 『丁若鏞的仁學觀』이다. 저자는 1938년생으로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과 교수이자 중국 철학계의 저명인사이다. 2006년 『泉州师范学院学报』에 발표된 그의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약용은 한국 유학계의 스승이자 비판정신이 매우 강한 사상가이다. 그는 유교의 경전인 『사서(四書)』를 연구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완성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인학(仁學)’이다. 정약용의 인학관은 중국의 송명유학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들은 역사상에서 유교의 발전과 변화를 뜻할뿐만 아니라, 유교가 동아시아 각각의 국가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뜻한다.

정약용은 비판을 위해서 비판 한 것이 아니라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을 했다. 그는 원시유가의 경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세의 과도한 해석과 주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송명유학에 대한 태도는 완전한 거부가 아닌 선별적인 거부였다.

정약용은 인이란 것은 평생동안 행해야 할 행위이며 인의 시작은 바로 효이며 효가 바로 인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濂培元은 위 논문에서 중국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상대성을 존중하며 정약용의 사상 또한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소개할 인간관과 천관에 관련된 논문은 중국인민대학교 철학과 교수 姜日天의 논문 『丁若鏞的天道觀與18,19世紀韓國實學形而上學』이다. 본 논문은 2010년 『湖湘论坛』에 발표되었다. 그의 논문은 당시의 시대배경부터 정약용과 천주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실학의 집대성자이다. 정약용의 천관(天觀)은 전체 실학사상의 중요 항목이다. 다산 선생은 평생 사서오경을 편집하고 당시의 정치, 법률, 경제, 교육, 문화 등에 관해 다량의 저서를 남겼다. 그리고 천관은 이 모든 방면의 이치를 한 데 모아주는 주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선생의 천도관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성신앙을 중시하는 유학의 새로운 체계이다. 그 중 천공관(天公觀)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인간의 지위를 한 단계 높여주었으며 천제관(天帝觀)은 조선 실학의 외재적 초월체계를 확정시켜 주었다. 그로 인해 유학에 있어 신에 대한 신앙체계의 불명확한 문제를 보완하였다.

다산 선생은 천주교의 정신적 배경은 유학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보았으나 저서를 통하여 천주교의 신앙체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호천상제(昊天上帝)라는 가상의 신앙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람의 내면수양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런 신앙체계에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다산 선생의 실학사상 중 천도관은 그의 전체 실학사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라며 논문을 마치고 있다.

둘째, 정약용과 시가(詩歌)를 주제로 한 논문이다.

20개의 논문 중 5개의 논문이 정약용의 시와 관련되어 작성되었다. 그 중 한편은 이미 위에서 설명했는데 성균관대학교 한국고전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교의 교수인 陳冰冰과 인하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북경대의경제무역대학교 교수인 郝君峰이 공동으로 저술한 중국의 시인 소식과 정약용을 비교해서 쓴 논문 『蘇軾의『魚蠻子』和丁若鏞的『耽津漁歌』的對比考察』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3편의 논문을 요약해서 설명하겠다.

먼저 소개할 논문은 중앙민족대학교 소수민족어언문학과 박사생 楊會敏의 논문 『朝鮮詩人丁若鏞詩歌的情與理』이다. 본 논문은 2009년 『語文學刊』에 발표되었다. 그의 논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산은 봉당정치에서의 고통, 세상 삶의 어려움,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등을 시에 담았는데, 필자(楊會敏)는 정약용 시가의 연구를 통해서 그의 시 중에는 정(情)과 이(理)가 교차하며 만들어진 미적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약용의 시를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와 비교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정약용 시가의 예술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楊會敏은 『고시십구수』 뿐만 아니라 『서경』의 시들도 인용하여 정약용의 시적 감각을 더욱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논문에는 정약용의 시들도 많이 등장하고 시가 쓰여진 배경 또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다산의 일생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편의 수채화 같은 느낌의 논문이다.

두 번째 논문은 중앙민족대학 소수민족어언문학과 박사생 曹春茹이 2009년 『電子科技大學學報』에 발표한 「朝鮮漢文學家丁若鏞漢詩의民本思想——以批判‘三政’詩歌為中心」이다. 楊會敏과 같은 대학원 출신인 曹春茹는 본 논문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약용의 마음을 다산의 시를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정약용은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자 실학자 그리고 시인이다. 그는 사회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했다. 이런 그의 마음이 그의 시속에 깊게 배어 있다.

정약용에게 있어서 붓은 강력한 무기였다. 『행차청양현(行次靑陽縣)』에서는 백성들의 노동을 찬양했다. 하지만 백성들의 생활고도 잊지 않았는데 『산옹(山翁)』이란 시에서 그는 백성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

정약용은 백성의 아픔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정치의 근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의 삼정(三政)의 문란에 대한 비판과 고찰은 기득권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정약용을 핍박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산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지배층이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희망했다.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시 속에 담겨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시 속에는 작가의 감정만 실린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군주를 아끼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정약용의 말을 빌려 曹春茹는 자신의 논문을 마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논문은 李曉萍의 「朝鮮詩人丁若鏞‘三吏’與杜甫‘三吏’之比較研究」이다. 공자의 고향인 산둥성 곡부의 대표적 사범대학교인 곡부사범대학교 문학원 석사반인 李曉萍가 2011년 『安康學院學報』에 발표한 본 논문은 중국의 대표적 시인인 두보의 삼리(『석호리(石壕吏)』, 『신안리(新安吏)』, 『동관리(潼關吏)』)와 정약용의 삼리(『용산리(龍山吏)』, 『파지리(波池吏)』, 『해남리(海南吏)』)를 비교하고 있다. 李曉萍는 자신의 논문에서 정약용을 두보보다 한 단계 아래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시인 정약용의 삼리 『용산리, 파지리, 해남리』는 중국 당대 대시인 두보의 삼리 『석호리, 신안리, 동관리』에 영감을 얻어 지은 것이다. 이 두 삼리는 시가의 표현방식과 감정의 기초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두 시인이 생활한 시대 환경과 각자의 문학적 소양이 달라 그들의 시가는 각기 다른 특색을 갖게 되었다. 비록 전체적인 예술적 성과면에서 정약용의 것이 두보의 것보다 조금 모자란 것이 사실이나 그의 삼리는 비교적 두보의 시를 성공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시인 자신이 한문학(漢文學)을 이미 배워 그 위에 다시금 그 만의 창조성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중국과 조선시가 사이에 있던 교류사상의 훌륭한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李曉萍의 의견을 좀 더 알아보자.

“두 시가의 표현형식은 중국고전시가 중의 오언고시의 형식을 빌고 있다. 하지만시의 압운

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의 시는 두보의 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농민, 농촌, 병역, 노역, 세금 등 백성의 고통 등을 주제로 했다는 것에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시인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 두보의 시는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에 관한 것이라면, 정약용의 시는 봉건사회 말기의 제도적인 혼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두 시 모두 약자의 편에 서서 개혁성과 민주성 등의 시대적 사상을 들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

표현 방식상 두 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두보의 시는 다량의 대화체가 있어 작자가 어떤 상황중의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정약용의 시는 시 전체가 개인의 서술 또는 묘사와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보의 시는 더 편한 대화체로 되어있어 백성들의 감정을 그대로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는 반면 정약용의 시는 문학적으로 조금 더 정제되고 다듬어져 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감정의 표현적인 면에서 역시 두보의 시보다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시인의 시 모두 봉건시대 사대부로서의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두보는 백성들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같이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정약용은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좀 더 냉철한 자세로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실제적인 실천들을 이어 갔다는 것이 두 시인의 다른 점일 것이다.”

李曉萍은 자신의 논문에서 정약용이 비록 위대한 시인이지만 두보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논문 내내 두보와 정약용을 대등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정약용이 두보보다 낮다는 稍, 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두보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약용과 주자의 관계를 주제로 한 논문이다.

20편의 논문 중 정약용과 주자학에 관련 된 논문은 모두 3편이다. 이 중 북경어언대학교 교수 黃卓越의 논문 「茶山四書經學的返古主義路徑 - 兼論其與朱王之學的關係」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약용은 조선실학의 집대성자이다. 우리는 그의 저서 『다산사서』를 예로 들어 중국 학술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다산과 주자학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두 학자간의 사상적 대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시 되어왔다. 하지만 이는 한쪽만 보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면도 생각해야 한다. 주자학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유교의 주류가 되었다. 주자의 철학은 형이상학적이며 지식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산은 이런 주자의 사상을 적절하게 받아들였다. 다산은 자신의 철학과 주자학을 잘 조합하여 “과거로 돌아가자(返古主義).”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반고주의는 전면적으로 펼쳐졌는데 책, 주석, 방법, 개념 등 모든 것이 원시유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결과로 그의 독특한 반고주의적 실학이 탄생했다.”

이 외에 정약용과 주자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청화대학교 인문대학원 彭林 교수의 「論丁

若鏞對朱熹『中庸章句』心性說的批評, 『當代韓國』에 발표 된 중국대련대학교 한국어학과 韓英 교수의 「試論丁若鏞對朱子學的批判」이 있다.

네 번째는 정약용과 역학(易學)의 관계를 주제로 한 논문이다.

정약용과 역학과 관련 된 논문은 중국에서 모두 2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1편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방인이 저술하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과학부 강사이자 경북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중국인 林海順이 번역한 『『周易四筴』의符號學解讀』이다. 다른 한 편은 중국인민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馮琳이 『周易研究』에 발표한 「丁若鏞象數易學方法初探」이란 논문이다. 이 논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정약용은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조선후기 실학의 집대성자이다.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로서 그는 공맹시대의 원시유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역학에 관한 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周易四筴』, 『周易緒言』등이 있다. 『주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는 중국 한(漢)대 이래로 내려오던 방법을 따랐으며 특히 괘 전체와 효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역은 특수한 부호들을 사용하는데 효괘의 변화로 내용을 설명한다. 정약용은 한대의 역학 전통을 따르고 주희와는 다른 자신만의 관점을 내세웠다.

정약용은 건과 곤이 주역의 근본이며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생겨난 괘로 64개의 괘가 모두 건과 곤에서 파생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의 주역 해석에는 많은 독특한 점들이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馮琳은 자신의 논문을 마친다.

마지막으로 위에 소개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논문들 및 정약용과 관련된 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총 20편의 논문 중 “정약용의 인간관(人間觀) 및 천관(天觀), 정약용과 시가(詩歌), 정약용과 주자학, 정약용과 역학” 이렇게 4개의 주제로 나눠 16편의 논문을 소개 및 요약하였다. 나머지 4편은 각각 “법률적 내용, 교육적 내용, 중국 철학자 안원과의 비교 연구, 목민심서 서평”이다. 목민심서 서평을 제외한 세 편은 위에 이미 모두 소개했다. 목민심서 서평은 2001년 『當代韓國』에 발표된 글로 제목은 「試析『牧民心書』中丁茶山的行政思想」이며 저자는 북경대학교 외국어학부 한국문화과 석사반 張春海이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산의 목민심서와 그의 행정사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 출판된 정약용과 관련된 저서를 찾기 위해서 중국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중국아마존에서 정약용을 검색해 보았다. 총 4권의 책이 검색되었는데, 대련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인 韓英이 한국어로 저술한 『대진(戴震)의 기학과 정약용 실학의 근대성 연구』(2007), 한국다산학술재단에서 한중 양국 학자들의 논문을 수집하여 편찬한 『茶山的四書經學』(2008),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인 孫玉霞의 『朝鮮詩人丁茶山的詩歌創作研究』(2010),

대만대학교 蔡振丰교수의 『朝鮮儒者丁若鏞的四書學:以東亞爲視野的討論』(2012)이 그것들이다.

지금까지 정약용과 다산학에 대한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및 저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중국에서 정약용과 다산학에 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자.

첫째, 20편의 논문 중 7편의 논문이 중국의 인물과 정약용을 연관지어 작성하였다. 그 중 3편은 정약용의 시와 중국의 시인과의(소식 1편, 두보 2편) 비교, 3편은 정약용과 주자와 관계된 내용이다. 일부의 논문은 정약용과 중국인물을 단순히 비교하기도 했으며, 李曉萍의 논문은 정약용과 두보를 비교하면서 두보의 위대성을 알리고자 정약용을 고의적으로 깎아 내리기도 했다.

둘째, 중국에서 다산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과 중국의 수도인 북경이었다. 두 지역의 교수 또는 석박사생의 발표된 논문은 전체 논문의 70%인 14편이었다.

연변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원 方浩范교수의 한국학과 다산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 다산을 가르치면서 다산의 중국 전파에 큰 공헌을 했다.

북경에서는 중국 최고학부인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언어계열로 유명한 북경어언대학교와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그리고 중국민족대학교와 중국사회과학원의 교수와 석박사생들이 모두 10편의 논문과 1편의 서적을 저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정약용 연구 중 정약용의 인간관 및 천관, 그리고 시가 쪽 방면의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밖의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까지도 사회주의국가인 관계로 다산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정약용과 천주교에 관한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중국 땅에는 다산과 다산학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하지만 위에 소개한 학자들의 노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학자들과 중국학자들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중국에서도 다산과 다산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맺음말

한국의 위대한 스승이자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 그의 학문과 정신은 21세기 현대과학사

회에서 잊혀지는 구시대적 산물이 아닌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이 깃뻛히고 물질만능주의인 현대사회를 해결하는 소중한 열쇠이다. 하지만 이 소중한 열쇠는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에서 녹슬고 있다. 열쇠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열쇠의 가치를 찾기 위한 첫 과제는 중국 땅에 열쇠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본문에서 정약용을 비롯한 한국학이 중국 내에서 생각만큼 활발히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을 시작으로 다산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다산 정약용을 중국에 알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산을 중국에 알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다산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중국 땅에 확립시켜야 한다. 중국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국의 사상가’라 하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2류 학자라는 편견이 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사상가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다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다산은 자신의 철학을 기초로 중국학과 서양의 천주교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다산학을 완성시킨 것이지, 중국학을 기초로 자신의 철학과 천주교를 더하여 완성시킨 것이 아니다. 중국에 다산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초반에는 다산의 세세한 학문적 성과가 아닌 ‘다산학’이라는 학문을 전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이는 주희의 주자학, 왕수인의 양명학과 같이 정약용의 다산학도 독자적인 학문이란 것을 중국 학계에 인지시키는 것이다. 중국학계에서 다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중된다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다산의 학술들을 소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약용의 장점과 특수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중국은 공자, 맹자, 주희, 왕양명 등 인문학적 요소가 강한 인물들이 매우 많다. 이런 이유로 현재 중국학계는 자신들이 그리스와 함께 인문학의 최고봉이라 생각한다. 정약용의 학문도 일부는 중국 인물들과 겹치는데 이는 중국학계가 정약용을 경시하는 큰 이유가 된다. 하지만 실학이란 학문을 뛰어 넘어 그의 실천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 만들어낸 과학자적인 요소는 중국 인물들에 버금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역의 처방전을 다룬 의과서적 『마과회통』의 저술, 한강의 배다리 놓기, 화성 설계, 거중기의 발명 등의 성과는 독특한 다산만의 성과이다. 정약용의 학문은 현대의 학술계가 지향하는 이론과 실천을 함께 겸비한 학문인 것이다. 이러한 정약용의 장점과 특수성을 부각시켜 인문학적인 정약용이 아닌 과학자적인 정약용을 중국에 소개한다면 중국 학술계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지방 거점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어야 한다. 현재 다산연구는 북경과 연변 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정부와 학계가 북경의 대학들과 많은 교류를 맺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각 성마다 유명 일류 대학교들이 있는데 상해의 복단대, 남경의 남경대, 항주의 절강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에 언급한 복단대, 남경대, 절강대 모두 한국어학과가 있으며 교수진도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한국학연구소도 자체적으로 있어 이 지방 거점 대학들과 교류를 맺고 지원하게 되면 다산학뿐만 아니라 한국학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거점 대학들을 중심으로 주위의 중·소규모의 대학들까지 연구가 퍼져 나가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모방하여 만든 C9¹⁴⁾에 북경의 대학교는 2군데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학계도 북경의 대학교들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의 유명대학교들과도 교류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우수한 논문과 저서들을 활발히 번역 보급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다산과 관련 된 논문이 무수히 많다. 또한 양질의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중국어로 번역되어 중국에 발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거에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번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주중한국유학생, 주한중국유학생의 증가, 특히 석·박사 등의 고급 인력의 증가는 언어적 어려움을 많이 해소시키고 있다. 또한 한자로 작성된 정약용의 저서는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보다 더 수월하게 해 줄 수 있다.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중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중국 연구자는 좋은 논문을 번역하면서 학술계에 첫 발을 내딛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땅에서만 읽혀지는 다산이 아닌 중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 통하는 다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논문의 꾸준한 번역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양국 간 12만 유학생들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 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양국의 유학생 수는 이미 12만명을 넘었다. 이 중 일부의 학생이 꾸준히 한국학과 다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석·박사생들의 활발한 논문 발표가 필요하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전체 유학생 28만여명 중에 63,000여명이 중국을 선택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학생들이 많이 찾는 국가였다.

표 4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 학생 수

(2011. 4. 1)

| 국가 | 미국 | 중국 | 호주 | 일본 | 뉴질랜드 | 필리핀 | 기타 | 계 |
|-------|--------|--------|--------|--------|--------|--------|--------|---------|
| 유학생수 | 72,153 | 62,957 | 33,929 | 25,692 | 10,289 | 30,061 | 21,089 | 289,288 |
| 비율(%) | 24.9 | 21.8 | 11.7 | 8.9 | 3.6 | 10.4 | 7.3 | 100.0 |

출처: 통계청

14) 북경대, 칭화대, 남경대, 복단대, 절강대, 중국과학기술대, 하얼빈공업대, 상해교통대, 서안교통대.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석·박사생들을 전체 중국 유학생의 10%만 잡아도 6,300명이 넘는다.¹⁵⁾ 중국에서 석·박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전에 반드시 학술잡지에 자신의 논문을 실어야 하는데 이들 중 5%만 정약용과 관련 된 논문을 중국 학술 잡지에 발표한다면 중국 학술계에는 일년에 300편 이상의 다산과 관련 된 논문이 발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바로 한중학계를 이끌 미래의 기둥들이므로 이들이 한국학과 다산에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학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한국학과 다산을 연구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흥미를 갖게 만들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산학술재단 또는 다산연구소 등에서 다산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한국인 또는 중국인 학생에게 일정 금액으로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한류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정약용을 단지 드라마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 한국에서 케이블 TV 동시간대 1.8%의 시청률을 보였던 ‘조선탐정 정약용’은 중국에서도 역시 그리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약용을 알게 된 것을 보면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인구 14억 중 0.1%만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면 천 사백만의 중국인이 정약용을 아는 것이다. 만약 한국 공영방송에서 유명 배우들을 섭외해 흥미있게 정약용과 관련 된 드라마를 만든다면 중국 대중들에게 있어서 그 파급효과는 논문 100편 이상일 것이다. ‘광개토대왕, 불멸의 장군 이순신, 뿌리 깊은 나무’ 등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매우 인기 있었으며 드라마를 통해서 이 세 위인의 중국 내 인지도가 급격하게 오른 것이 좋은 예이다. 필자의 친구들 또한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필자에게 묻곤 했다.

정약용의 인생 그 자체가 드라마이다. 다산과 정조의 우정, 다산 삼형제와 천주교, 봉당 정치와 음모, 그의 학술적 성과 등의 이야기들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중국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방영되었던 딱딱한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닌 재미와 감동을 겸비한 다산 드라마를 만든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약용을 알리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산과 관련된 영화, 게임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곱째, 한국어 교재에 정약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재이고 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표는 드라마와 노래를 이해하는데 있다.

15)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석·박사생의 80% 이상은 문과계열이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한국어 교재들이 판매되고 있다.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형식을 벗어나 최근에는 각양각색의 교재가 출판되고 있다. 중,고급의 한국어 교재에서 정약용과 관련된 내용을 첨가한다면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정약용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 정약용을 미리 알았던 외국인들이 이 교재를 접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중국어 교재 중에는 전문적으로 삼국지와 수호지, 서유기, 논어, 맹자 등 중국의 고전을 쉽고 재밌게 만든 교재들이 있다. 이런 교재들을 참고로 다산의 이야기를 교재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산을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세종학당과 연계해 세종학당 내 다산서당(가칭)을 설립해 다산학과 한국학을 알리는 전초기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2년은 다산 탄생 250주년이다. 한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산을 아는 외국인 학자들도 다산의 파란만장한 삶과 학문적 성과에 놀라곤 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국한된 내용일 뿐 세계로 눈을 돌리면 다산은 한국의 이름 없는 학자일 뿐이다.

다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략적으로 다산을 알려야지 무계획적으로 알린다면 다산은 단지 중국 학문을 참고한 아시아의 이류 학자일 뿐이다.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에 다산을 알리자. 정부, 학계, 유학생, 문화계 등 모든 힘을 합쳐서 한국의 위대한 유산인 다산과 한국학을 알리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다산의 이름과 학술이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본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 금장태, 2008, 『다산 정약용: 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살림출판사, 20-23쪽.
- 김병운, 2009, 『중국어권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쪽.
- 임효례, 2010, 『중국의 한국어 문화교육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제6권, 한국언어 문화교육학회, 27쪽.

부록 1: 중국 내 정약용 관련 논문 및 저서

연구자에 대한 분석

1) 한국 학자의 논문

- 이원택, 2004, 「19世紀朝鮮丁若鏞의復仇論」, 『法律史研究』.
- 박홍석, 2008, 「簡論丁若鏞의民本思想」, 『山東師範大學學報』, 5期.
- 방인 著, 임해순 譯, 2010, 「『周易四箋』의符號學解讀」, 『周易研究』, 1期.

2) 한국 유학파의 논문

- 邢麗菊, 2006, 「從茶山經學看其心性論」, 『孔子研究』, 6期.
- 陳冰冰 郝君峰, 2010, 「蘇軾的『魚蠻子』和丁若鏞的『耽津漁歌』的對比考察」, 『世界文學評論』, 1期.

3) 중국 연변대학교의 석사논문 및 方浩范교수

- 孫濤, 2007, 「顏元和丁若鏞의哲學思想比較」,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孫旭東, 2007, 「丁若鏞教育改革思想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方浩范, 2005, 「試論丁若鏞的天理人慾思想」, 『延邊大學學報』, 4期.
- 方浩范 東景南, 2008, 「丁若鏞實學中仁學思想體系的建構」, 『孔子研究』, 1期.

주제별 분석

1) 정약용의 인간관(人間觀) 및 천관(天觀)

- 박홍석, 2008, 「簡論丁若鏞의民本思想」, 『山東師範大學學報』, 5期.
- 方浩范, 2005, 「試論丁若鏞的天理人慾思想」, 『延邊大學學報』, 4期.
- 方浩范 東景南, 2008, 「丁若鏞實學中仁學思想體系的建構」, 『孔子研究』, 1期.

- 邢麗菊, 2006, 「從茶山經學看其心性論」, 『孔子研究』, 6期.
濛培元, 2006, 「丁若鏞的仁學觀」, 『泉州师范学院学报』, 1期.
姜日天, 2010, 「丁若鏞的天道觀與18, 19 世紀韓國實學形而上學」, 『湖湘論壇』, 3期.

2) 정약용과 시가(詩歌)

- 楊會敏, 2009, 「朝鮮詩人丁若鏞詩歌的情與理」, 『語文學刊』, 6期.
曹春茹, 2009, 「朝鮮漢文學家丁若鏞漢詩的民本思想——以批判‘三政’詩歌為中心」, 『電子科技大學學報』, 5期.
陳冰冰 郝君峰, 2010, 「蘇軾的『魚蠻子』和丁若鏞的『耽津漁歌』的對比考察」, 『世界文學評論』, 1期.
孫玉霞, 2010, 「茶山與杜甫詩歌創作的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李曉萍, 2011, 「朝鮮詩人丁若鏞“三吏”與杜甫“三吏”之比較研究」, 『安康學院學報』, 5期.

3) 정약용과 주자학

- 韓英, 2003, 「試論丁若鏞對朱子學的批判」, 『當代韓國』, 2期.
彭林, 2005, 「論丁若鏞對朱熹『中庸章句』心性說的批評」,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6期.
黃卓越, 2006, 「茶山四書經學的返古主義路徑 - 兼論其與朱王之學的關係」, 『浙江社會科學報』, 5期.

4) 정약용과 역학

- 방인 著, 임해순 譯, 2010, 「『周易四箋』의符號學解讀」, 『周易研究』, 1期.
馮琳, 2011, 「丁若鏞象數易學方法初探」, 『周易研究』, 1期.

5) 기타 논문들

- 이원택, 2004, 「19世紀朝鮮丁若鏞의復仇論」, 『法律史研究』.
張春海, 2001, 「試析《牧民心書》中丁茶山的行政思想」, 『當代韓國』, 1期.
孫壽, 2007, 「顏元和丁若鏞的哲學思想比較」,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孫旭東, 2007, 「丁若鏞教育改革思想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6) 정약용과 관련된 저서

韓英, 2007, 『대진(戴震)의 기학과 정약용 실학의 근대성 연구』.

다산학술재단, 2008, 『茶山의四書經學』.

孫玉霞, 2010, 『朝鮮詩人丁茶山の詩歌創作研究』.

蔡振丰, 2012, 『朝鮮儒者丁若鏞의四書學:以東亞爲視野的討論』.

부록 2: 표로 보는 중국 내 정약용 관련 논문

| 연구자 주제 | 한국 학자의 논문 | 한국 유학파의 논문 | 중국 연변대학교의 석사논문 및 方浩范교수 | 중국 학자의 논문 |
|-------------------------------------|---|--|--|--|
| 정약용의 인간관 (人間觀) 및 천관(天觀) | 박홍석 (2008) 『簡論丁若鏞的民 本思想』 | 邢麗菊 (2006) 『從茶山經學看 其心性論』 | 方浩范 (2005) 『試論丁若鏞的天理人慾 思想』 方浩范, 東景南 (2008) 『丁若鏞實學中仁學思想 體係的建構』 | 濛培元 (2006) 『丁若鏞的仁學觀』 姜日天 (2010) 『丁若鏞的天道觀與18, 19 世紀韓國實學形而上學』 |
| 정약용과 시가(詩歌) | | 陳冰冰 郝君峰(2010) 『蘇軾的『魚蠻子』 和丁若鏞的『耽 津漁歌』的對比 考察』 | | 楊會敏(2009) 『朝鮮詩人丁若鏞詩歌的情與理』 曹春茹(2009) 『朝鮮漢文學家丁若鏞漢詩的民 本思想——以批判“三政”詩歌為 中心』 孫玉霞 (2010) 『茶山與杜甫詩歌創作的比較研究』 李曉萍 (2011) 『朝鮮詩人丁若鏞“三吏”與杜甫“ 三吏”之比較研究』 |
| 정약용과 주자학 | | | | 韓英 (2003) 『試論丁若鏞對朱子學的批判』 彭林 (2005) 『論丁若鏞對朱熹『中庸章句』心 性說的批評』 黃卓越 (2006) 『茶山四書經學的返古主義路徑 - 兼論其與朱王之學的關係』 |
| 정약용과 역학 | 방인著, 임해순譯 (2010) 『『周易四筴』의符 號學解讀』 | | | 馮琳 (2011) 『丁若鏞象數易學方法初探』 |
| 기타 논문들 | 이원택 (2004) 『19世紀朝鮮丁若 鏞의復仇論』 | | 孫濤 (2007) 『顏元和丁若鏞的哲學思 想比較』 孫旭東 (2007) 『丁若鏞教育改革思想探析』 | 張春海 (2001) 『試析 『牧民心書』中丁茶山的行政 思想』 |